

 		<h1>설명자료</h1> <p>2020. 1. 17.(금) 배포</p>	
<p>보도일</p>	<p><b>배포 즉시</b></p>		
<p>담당</p>	<p>유아교육정책과</p>	<p>과장 사무관</p>	<p>이지은 (☎ 044-203-6445) 강명원 (☎ 044-203-6498)</p>

**유아교육 국가책임 확대를 위해  
국공립유치원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.**

- 언론사명 / 보도일시 : 조선일보(유소연 기자) / 2020. 1. 17(금)
- 제목 : 사립유치원 폐업뎀 공립 전환? 불안한 학부모

**< 동 보도내용에 대한 설명 >**

□ 교육부는 문재인 정부 핵심 국정과제인 ‘유아교육의 국가책임 확대’에 따라 국·공립유치원 확충(취원율 40%)을 추진하고 있습니다.

※ 국공립유치원 학급 수(개) : ('17)10,395 → ('18)10,896 → ('19)11,889

□ 지난 '18년 「유치원 공공성 강화 방안(10.25)」의 국·공립유치원 다양화 모델의 일환으로 공립유치원 선호도가 높은 지역, 저소득층 밀집지역 등에 우선하여 ‘매입형 유치원’\*을 설립하고 있습니다.

○ 이는, 기존에 운영 중인 사립유치원을 공립으로 전환한 것으로, 학교 부지 확보가 어려운 지역에서도 학부모 수요에 탄력적으로 부응하고, 유아교육의 국가책임을 확대하기 위함입니다.

\* '19년 5개원 개원, '20년 서울·경기 등 30개원 내외 개원 목표로 설립 추진 중

□ 국·공립유치원의 확대와 함께, 유아의 통학불편 최소화를 위한 통학버스 운영 확대\*와 맞벌이 자녀 등 학부모의 돌봄 수요\*를 반영한 서비스 개선을 추진하고 있습니다.

※ 통학버스 운영 현황 : ('18) 1,182개원, 1,344대 → ('19.8.) 1,461개원, 1,871대

\* 07~22시까지 현장밀착형 유치원 돌봄을 탄력적 운영

- 앞으로도 교육부는 학부모가 보다 체감할 수 있는 서비스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.

